

2월 18일 갈 1:6-10, 다른 복음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요꼬라는 한 일본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콧속에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미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기세로 계속 쳐들어오는 미군 때문에, 자기 부대의 전우들이 다 죽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기 혼자 살아 남게 되었습니다. 요꼬는 미군을 피해서 계속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원시림이기 때문에 숨어있기가 아주 안전했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요꼬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에, 깊은 산속 원시림 속에 홀로 숨어서 지냈습니다. 한 번은 원시림에서 나와 원주민들에게 전쟁 소식을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잘은 모르지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시림으로 들어가, 무려 27년 동안 그 원시림 속에서 살았답니다.

콧 섬에는 큰 비행장이 있다고 합니다. 요꼬라는 청년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저렇게 뜨고 내린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무려 27년을 산 속에서 혼자 퐁퐁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20대의 청년이 50살이 될 때까지 산 속에서 숨어살았답니다. 얼마나 가까운 세월입니까? 원주민들에게 잘못 들은 소식 하나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 27년을, 원시림 속에서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며 숨어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만 들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한 소식을 올바로 듣지 못하면, 이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올바로 정확하게 들어야 될 소식이, 십자가 복음의 소식입니다.

다같이 6절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먼저 문안 인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칭찬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갈라디아서에는 좀 다릅니다. 감사나 찬양이나 칭찬이 없습니다. 그 대신 아주 격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뿐만 아니라, 무서운 저주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뒷부분)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만큼 커다란 과오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하고 다급하게 그들을 저주까지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6 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기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은망덕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론을 생략해 버리고, 급한 마음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뜻은, 잘못된 복음, 틀린 복음이란 뜻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던 처음에는 이것을 모르고 지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아 지는 것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 오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부터가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진 것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안 만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가 9 형제이셨고, 그 중에 셋째이셨다고 합니다. 9 형제 중에 8명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일찍 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홉째이신 막내 할아버님만이, 오래 까지 사시면서 복음을 듣고 믿으셔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저희 막내 할아버님께서 제 할머니와 제 아버지께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복음만 들었다면 구원을 받으셨을 지도 모르는데, 교회는 없고 유교의 향교가 있는 시골에 사셨기에, 전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을 풍성히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그것도 복음이 가장 풍성한 한국과 미국에서 살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또한 나 한사람 예수 믿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제 3 한강교 옆 양화진에는, 100 년 전에, 복음 때문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 땅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한국 근대 역사를 통해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며 살다가 갔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귀에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들려진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다는 것, 이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강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 문을 닫고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 여기까지 내려온 복음인데, 우리 귀에까지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마음 문을 꼭 닫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거절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서,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사실 저도 이렇게 귀한 복음을 믿지 못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외할머니와 부모님들의 끈질긴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주위에 먼저 믿으신 부모님, 아내나 남편, 동기간이나 친구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인하여 믿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사랑과 은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다거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될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저주까지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언가 구원받을 공로를 세워야 한다.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자신의 의가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되고, 중요한 계명도 지켜야되고, 선한 일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율법주의가, 그 당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다른 복음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한국에 안식교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안식교는 그 이름 그대로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것은 계명,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는다면, 그 증거로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지요.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교묘하게 순서를 뒤바꿔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계명을 지키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믿어서 구원을 받은 후에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먼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댓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의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체에게 100m 달리기를 시켜 보십시오. 100 미터를 달리면 백만불을 상금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10 초가 걸리든, 10 분이 걸리든, 한 시간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지 100 미터만 달리면 백만 달러를 준다고 해보십시오. 이 시체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은 일어나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죽은 시체였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요? 있습니다. 엡 2:1 에 있지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를 보고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죽은 시체이기에 스스로는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시체가 100 미터 달리기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죽은 시체가 살아나기만 하면 100 미터가 아니라 1000 미터라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체가 살아나게 하는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져서 살아난 후에라야, 비로소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한 안식교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짓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먼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끊임없이 계속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어야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도 지키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선한 행위는,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같이 7 절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은혜의 복음을 변질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인간의 공로를 더하려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십자가 보혈에 인간의 땀을 섞어서는 안됩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분별력입니다. 절대로 이 분별력이 흐려지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다같이 8 절-9 절을 읽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듣고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자그마한 공로나,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교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은, 바로 이것을 자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에 보니까, 흰 마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꺼먼 마귀는 누구나 쉽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시꺼먼 마귀에게는, 주로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 한발은 세상에 한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나 넘어간답니다. 사는 것을 보면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꺼먼 마귀에게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꺼먼 마귀에게는 잘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흰 마귀는 다르다고 합니다. 흰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어서야 쓰나. 믿는다고 하려면 적어도 율법이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야지. 집사가 되어 가지고, 장로, 목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믿어서 쓰겠어. 믿으려면 철저히 믿어야지. 이제 보니 강목사, 이거 형편없구먼, 이거 믿는거야 마는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흰 마귀라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가 가득차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루터의 이 주석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실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강 목사야. 네 힘으로 목회하고, 네 열심으로, 네 지혜로 목회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치고 실수하고 시험에 들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목회의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다 맡아주마, 너는 나만 의지하거라. 네 목회를, 네 삶을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우리 주님은 나의 실수를 정죄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인간의 공로를 더하려는 거짓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씩이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8 절 뒷부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절 뒷부분에도.....

끝으로 10 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는 타협자라고 헐뜯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전 9:19-23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 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 자 함이라.”

언뜻보면,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하게 보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 영혼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한 영혼이라고 더, 십자가 사랑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공로, 내 노력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고 작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보혈의 사랑만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교만과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 교만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 복음을 믿고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